스위스 최상급 산악 교통 10 가지.

세계 최고(高), 세계 최초, 세상에서 제일, 최상급 수식어가 붙는 산악 교통편

유럽 최초의 산악 열차, 세계 최초의 회전 케이블카, 세계 최초의 컨버터블 케이블카
유럽 최고(高)의 산악 기차, 유럽 최고(高)의 케이블카, 세계 최고(高)의 지하 케이블카
세상에서 제일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 유럽에서 가장 긴 곤돌라

지난 2016 년 6 월 1 일, 고타드 베이스 터널은 세기에 한 번 있을 17 년의 대공사를 마치고, 개통식을 치른바 있다. 예상보다 1 년이나 앞서 개통이 되는 고타드 베이스 터널은 최대 시속 275km 로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시운전을 거쳐 이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개통식 이후로 스위스 연방 철도철이 6 개월간 꼼꼼한 시운전을 거쳐 드디어 2016 년 12 월 11 일부터 실제 기차 운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깊은 철도 터널, 고타드 베이스 터널의 길이는 총 57km, 가장 깊은 지점의 깊이는 2300m 다. 스위스의 독어권인 취리히(Zurich)주와 이탈리아권인 티치노(Ticino) 주를 연결한다. 최대 시속 250km 로 달리며 독어권의 에르스트펠트(Erstfeld)와 이태리어권의 보디오(Bodio)까지 이어지는 57km 의 터널을 17 분만에 주파한다. 이로써 스위스 내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북유럽과 남유럽 여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장장 17 년이 걸린 이 공사에는 총 122 억 스위스 프랑이 소요되었다. 10 개국 이상 2600 여명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알프스를 관통하는 평지 선로는 스위스의 정확성과 기업 혁신, 철로 신뢰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사로 평가받는다.

고타드 베이스 터널처럼 스위스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운 교통 시설, 특히 산악 교통편이 많이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관광객들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보다 가까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세계 최고(高)', '세계 최초', '세상에서 제일' 등의 최상급 수식어가 따라붙는 스위스 산악 교통편 10 가지를 소개한다.

1. 유럽 최초의 산악 열차, 리기 바넨(Rigi Bahnen)

초원이 가득 펼쳐진 낭만적인 리기산으로 향하는 리기 철도는 비츠나우(Vitznau)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비츠나우 리기반(Vitznau-Rigi Bahn)과 아르트 골다우(Arth Goldau)에서 출발하는 아르트 리기반(Arth-Rigi-Bahn), 그리고 벡기스(Weggis)에서 리기 칼트바드(Rigi Kaltbad)를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운행된다. 1871 년 비츠나우와 리기 슈타펠회헤(Rigi Staffelhöhe) 구간 운행을 시작한 리기 철도는 유럽 최초의 톱니바퀴 산악 열차다. 연인과 두 손을 꼭 잡고 초원을 하이킹하며 야생화를 감상하고, 산 아래로 펼쳐진 루체른 호수와 목가적인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리기 산에서 특별히 추천하는 코스는 리기-칼트바드(Rigi-Kaltbad)에서 리기-샤이데그(Rigi-Scheidegg) 코스이다. 3 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정겨운 야생화와 초록 들판을 마음껏 즐기며 중간중간에 위치한 산장 식당에서 미식 여행을 즐기기도 좋다. 루체른에서 리기산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비츠나우와 벡기스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 호수의 정취있는 파노라마를 즐겨도 좋다.

고도: 1,550 m
찾아가는 법: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타고 비츠나우에 도착해 리기 기차로 갈아타고 정상인 리기 쿨름(Rigi Kulm)에 내린다. 내려올 때에는 정상에서 리기 칼트바드까지 하이킹을 즐긴 후, 케이블카를 타고 벡기스에 내려 다시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르트 골다우(Arth-Goldau)에서도 기차로 리기 쿨름까지 오르내릴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식당: 리기 정상에는 카페테리아 레스토랑이 있으며, 리기산 곳곳, 특히 역 근처에 아늑하고 정겨운 산장 레스토랑이 있다.
이용료: 비츠나우 및 벡기스에서 리기 쿨름까지 왕복 티켓 CHF 72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무료)
www.rigi.ch

2. 스위스에서 가장 가파른 일반 철도, 위틀리베르그반(Uetliberg Bahn)

1875 년에 개통한 위틀리베르그 철도는 그 당시 톱니바퀴 열차가 아닌 일반 철도로써는 가장 가파른 것으로, 획기적인 기술로 인정받았다. 취리히의 문턱에 자리한 산봉우리는 해발 140m 높이로 도심 위에 솟아 있다. 취리히 시가지와 호수, 알프스 산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기막힌 전망대다.
위틀리베르그 정상에는 4 성급 파노라마 호텔인, 우토 쿨름(Uto Kulm)이 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 둘러 쌓여 독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밤에 쏟아져 내리는 별빛을 만끽하기 그만이다.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취리히 시민들의 결혼식으로 인기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미식 요리를 즐겨 보거나 잠시 쉬어가며 와인이나 커피 등을 마시기에도 좋다. 위틀리베르그에서 펠젠에그(Felsenegg)까지의 하이킹도 유명한 코스다.

고도: 140m
찾아가는 법: 취리히 기차역에서 위틀리베르그로 출발하는 에스반(S-Bahn)기차가 있다.
식당: 정상의 우토 쿨름 호텔에서 미식 요리나 간단한 음료를 즐기기 좋다.
이용료: 취리히부터 위틀리베르그까지 왕복 CHF 17.60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무료)
www.szu.ch

3.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 필라투스반(Pilatusbahn)

1889 년 운행을 시작한 필라투스반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로 유명하다. 중앙 스위스를 상징하는 바위산, 필라투스(Pilatus)로 향하는 방법은 색다르다. "골든 라운드 트립(Golden Round Trip)"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로, 유람선, 톱니바퀴 열차, 케이블카, 곤돌라를 모두 이용해 여행을 하는 것이다. 조난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었던 용의 전설을 품고 있는 필라투스는 루체른(Luzern) 시내에서 무척 가까워 반일 여정도 가능한 까닭에 관광객들에게는 물론, 루체른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산이다. 게다가 알프나흐슈타트(Alpnachstad)부터 운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는 매년 5 월부터 10 월까지 깎아지른 절벽과 숲, 들판을 지나 필라투스 정상까지 스릴 넘치는 풍경을 선사한다. 최고 경사도가 48 도나 된다. 필라투스 정상에서는 동굴 사이를 거닐며 루체른 호수와 마을의 풍경이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고, 알프스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알프스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정상에 위치한 필라투스 쿨름(Pilatus-Kulm) 호텔에 묵는다면 낭만적인 석양과 일출도 감상할 수 있다.

고도: 2119m
찾아가는 법: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타고 알프나흐슈타트(Alpnachstad)에 도착해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필라투스 정상에 오른다(단 5-10 월만 운행). 내려올 때는 정상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프래크뮌테그(Fräkmüntegg)에 내려 곤돌라로 갈아 타고 크리엔스(Kriens)까지 간 다음 버스를 타고 루체른 시내로 돌아갈 수 있다. 반대 방법도 가능하다.
식당: 필라투스 정상의 카페테리아는 물론, 필라투스 쿨름 호텔에서 미식 코스를 맛볼 수 있다. 중간역에도 산장 식당이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이용료: 골든 라운드 트립이 가능한 알프나흐슈타트/크리엔스부터 필라투스 정상까지 왕복 CHF 72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무료)
www.pilatus.ch

4. 스위스 최초의 전기 톱니바퀴 열차, 고르너그라트반(Gornergrat Bahn).

4000m 급 봉우리 29 개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정상에서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두포우르슈피체(Dufourspitze: 4634m)와 알프스에서 세 번째로 긴 빙하인 고르너(Gorner) 빙하가 있는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풍경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고르너그라트반 기차로, 1898 년부터 운행되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전기 톱니바퀴 열차이다. 톱니바퀴 열차로 체르마트(Zermatt)부터 고르너그라트 정상까지 매 24 분마다 기차가 운행된다. 짜릿한 고가를 지나고 터널과 깊은 숲속, 계곡과 산정 호수를 지나는 여정 자체도 무척 아름답다. 해발고도 3,089m 의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는 야외 전망대가 연중 운영된다. 기차 여정도 즐겁지만 고르너그라트 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여름에는 산상호수와 야생화가 있는 하이킹을 즐길 수 있고, 3 개의 바이킹 루트도 마련되어 있다. 중간에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다시 고르너그라트반에 올라타고 체르마트 마을로 돌아오면 되니, 무리하지 않아도 되어 좋다. 겨울이면 로텐보덴(Rotenboden)부터 리벨베르그(Riffelberg)까지 썰매 코스가 운영되고, 스키와 모굴 피스트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스노우 하이킹 코스도 좋다. 중간 중간에는 카페와 산장 레스토랑이 위치해 있어 출출한 허기를 달래며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고르너그라트 정상에 있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Kulmhotel Gornergrat)에 자리한 쇼핑몰에서 기념품을 장만해 보아도 좋겠다.

고도: 3,089m
찾아가는 법: 체르마트(Zermatt) 기차역 맞은편에 있는 마테호른 고타르드 반(Matterhorn Gotthard Bahn) 기차역에서 고르너그라트 정상행 기차를 탈 수 있다. 정상까지 약 35 분 정도가 소요된다.
식당: 고르너그라트 정상의 카페테리아와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Kulmhotel Gornergrat)의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역들에도 레스토랑이 있다.
이용료: 왕복 CHF 94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gornergrat.ch

5. 유럽에서 가장 긴 곤돌라, 맨리헨반(Maennlichenbahn)

1978 년부터 장장 6km 가 넘는 거리를 운행해온 맨리헨반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긴 곤돌라다. 그린델발트(Grindelwald)와 맨리헨()을 연결해 주고 있다. 그린델발트만큼 빙하가 가까운 계곡도 없기 때문에 곤돌라를 타고 맨리헨으로 올라가는 내내 즐거운 파노라마를 만끽할 수 있다. 맨리헨에서는 정겨운 야생화를 따라 어렵지 않은 하이킹에 도전해 볼 수 있다. 맨리헨(Männlichen)에서 출발하여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으로 돌아오는 걷기 코스를 추천하는데, 운동화만 신고도 가능한 평탄한 코스로, 봄부터 여름까지 다양한 알프스 허브와 야생화를 볼 수 있다. 1 시간 반 정도면 충분한 코스다.

고도: 2343m
찾아가는 법: 그린델발트 역 뒤쪽의 그린델발트 그룬트(Grund) 구역으로 이동하면 맨리헨 방향으로 가는 케이블카 역이 나온다.
식당: 맨리헨 역에 전통 식당이 있다.

이용료: 왕복 CHF 60 (스위스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maennlichen.ch

6. 탑 오프 유럽(Top of Europe),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로 향하는 산악 기차, 융프라우반(Jungfraubahn).

1912 년 이래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3454m)에 자리한 기차역, 융프라우요흐까지 철도가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그 정상에서 내려다본 빙하의 세계는 감탄을 자아낸다. 아이거(Eiger), 뫼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봉우리가 펼쳐지고, 그 아래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Aletsch) 빙하가 신비스런 빛깔을 뿜어내는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융프라우반은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부터 시작되는데 톱니바퀴 열차로 연중 운행되고 있다. 터널과 깍아지른 절벽을 가로질러 융프라우요흐 봉우리 정상까지 운행된다. 터널에서 2 회 정차를 하여 아이거 북벽과 주변의 빙하 세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만년설 한 가운데에서 파노라마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뫼히스요흐(Mönchsjoch) 방향으로 45 분 정도 스노우 하이크에 나서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얼음 동굴에서는 다양한 얼음 조각을 구경할 수 있고, 스핑크스 전망대, 파노라마가 장관인 "탑 오프 유럽(Top of Europe)" 빙하 레스토랑도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고도: 3454m
찾아가는 법: 그린델발트(Grindelwald) 혹은 라오터브루넨(Lauterbrunnen) 에서 기차를 타고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까지 간 뒤, 융프라우반을 타고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식당: "크리스탈(Crystal)" 레스토랑에서는 스위스 음식을 비롯한 국제적인 메뉴를 맛볼 수 있고, "발리우드(Bollywood)" 레스토랑에서는 인도 메뉴를, "알레취(Aletsch)"에서는 셀프 서비스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이용료: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에서 출발해 돌아올 때는 그린델발트(Grindelwald)행 이용시 왕복 CHF 201.60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CHF 137.40)
www.jungfrau.ch

7.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 마테호른 글라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로 향하는 체르마트 베르그바넨(Zermatt Bergbahnen).

체르마트 베르그바넨 아게(Zermatt Bergbahnen AG)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로, 1979 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이자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의 3 국 알프스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빙하 궁전이 있고, 마테호른의 명봉과 마주하고 있으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레스토랑과 케이블카 역이 친환경 모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곳, 게다가 정상에서의 숙박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스키가 가능해 전 세계 스키어들을 불러모으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테호른 글라시어 파라다이스는 원칭, 클라인 마테호른(Klein Matterhorn)이라는 봉우리를 말한다. 작은 마테호른이라는 뜻이다. 3883m 에 위치한 케이블카 역에는 새롭게 단장한 레스토랑과 숍, 미네르기-P 인증을 받은 친환경 숙박 시설이 있다.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파노라마형 창문을 갖추고 있어 창밖으로 테오둘(Theodul) 빙하 위로 날아다니는 알프스 까마귀와 용감무쌍한 알프스 등정가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빙하 궁전은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데, 아름다운 얼음 조각과 신비한 빙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고도: 3883m
찾아가는 법: 체르마트 기차역에서 마을을 지나면 케이블카 역이 나온다. 먼저 마테호른 익스프레스(Matterhorn Express) 곤돌라를 타고 푸리(Furi) 역에 내려 대형 곤돌라를 타고 트로케넨 슈테그(Trockenen Steg)에 내려 마지막으로 공중 케이블카를 타면 클라인 마테호른(Klein Matterhorn) 봉우리의 정상이자, 마테호른 글라시어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게 된다.
식당: 정상에는 친환경 레스토랑이 있고, 푸리 역에도 산장 레스토랑이 있다.
이용료: 왕복 CHF 100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matterhornparadise.ch

8. 세계에서 가장 높은 퓨니큘러/지하 케이블카, 메트로 알핀(Metro Alpin)

체스옌(Chessjen) 빙하 아래를 뚫고 2,980m 높이의 산 정상까지 질주하는 메트로 알핀(Metro Alpin)은 1984 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퓨니큘러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하 철도다. 사스페(Saas-Fee)에 펼쳐진 알프스 봉우리들이 빙하의 반짝임과 뒤섞여 눈부시게 만드는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메트로 알핀을 타고 터널을 지나다 보면 알프스 고산지대를 초속 10m 로 질주하며 약 500m 고도 차이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기 일쑤다. 사스페에서 공중 케이블카인 알핀 익스프레스(Alpine-Express)를 타고 10 분 뒤에 펠스킨(Felskinn)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하 퓨니큘러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전 레스토랑이 있는 미텔알라린(Mittelallalin)에 도착하게 된다. 4000 미터급 봉우리에 둘러쌓여 천천히 회전하는 파노라마 한 가운데서 식사를 즐기기 좋다. 정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이스 파빌리옹이 있어 빙하와 얼음 조각들이 자아내는 신비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고도: 3500m
찾아가는 법: 사스페 마을 버스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알핀 익스프레스 케이블카 역이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펠스킨에 도착해 메트로 알핀을 타면 미텔알라린 정상에 도착한다.
식당: 알라린 정상에는 360 도 회전 레스토랑이 있어, 알프스 파노라마 한 가운데서 낭만적인 식사를 즐기기 좋다.
이용료: 왕복 CHF 75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saas-fee.ch/bergbahnen

9. 세계 최초의 회전 곤돌라, 티틀리스 바넨(Titlis Bahnen).

1992 년 운행을 시작한 세계 최초의 회전 곤돌라로 유명한 티틀리스는 중앙 스위스 알프스와 빙하의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곤돌라가 정상에 도착하는 마지막 600m 구간 동안 360 도 회전을 1 회하며 사방의 파노라마를 골고루 보여주는 친절함도 갖췄다. 알프스의 하늘을 둥실 떠오르며 5 분 동안 천천히 회전을 하는 티틀리스의 회전 곤돌라에서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우리 알프스(Uri Alps), 오브발트(Obwald)의 멜히탈(Melchtal) 계곡, 루체른 호수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티틀리스 정상에서는 빙하 체어 리프트를 타고 빙하의 크레바스를 관찰할 수 있으며, 350m 나 되는 빙하 동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눈썰매도 빠질 수 없는 묘미이며, 최근에 만든 아찔한 구름다리, 티틀리스 클리프 워크(Titlis Cliff Walk)를 건너며 아찔한 빙하 체험을 즐길 수도 있다.

고도: 3020m
찾아가는 법: 루체른에서 기차를 타고 엥겔베르그(Engelberg) 역에 내리면 티틀리스 케이블카 역을 도보로 찾아갈 수 있다. 6 인승 케이블카를 타고 트뤱제(Trübsee) 중간 역에 하차해 공중 케이블카를

타고 슈탄트(Stand) 역에 내려 회전 케이블카인 티틀리스 로테르(Titlis Rotair)를 타면 정상역인 클라인 티틀리스(Klein-Titlis)에 도착하게 된다.
식당: 정상에 레스토랑이 있으며, 중간역인 슈탄트와 트룹제에도 산장 식당이 있다.
이용료: 엥겔베르그부터 티틀리스 정상까지 왕복 CHF 92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50% 할인)
www.titlis.ch

10. 세계 최초의 컨버터블 케이블카, 카브리오(CabriO).

2012 년 새롭게 선보인 세계 최초의 컨버터블 스타일 케이블카를 루체른의 슈탄저호른(Stanserhorn)에서 만나볼 수 있다. 카브리오(CabriO)라는 이름의 이 케이블카는 슈탄저호른 산을 올라가면서 더블 데커로 설치된 케이블카의 2 층 전망층에서 알프스의 상쾌한 공기와 바람을 직접 맞을 수 있다. 해발고도 1900m 에 달하는 슈탄저호른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며 알프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나부끼고, 머리 위로 짙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눈앞에는 360 도 파노라마 장관이 그림같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케이블카, 카브리오의 컨셉이다. '크레이지 아이디어(crazy idea)'라고 여겨질법도 한 혁신적인 케이블카, 카브리오는 세계 최초의 지붕 없는 이층 케이블카로, 편안한 더블데커 케이블카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파노라마형 유리 창문으로 구성된 1 층에는 60 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올라 2 층에 오르면 30 명 수용이 가능한 전망층이 나온다. 슈탄저호른 정상에는 회전 레스토랑과 근사한 전망대가 있어 루체른 호수 지역의 기막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야생화 꽃길이나 마모트 공원을 따라 하이킹을 즐기기도 좋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연날리기 클럽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단, 겨울 시즌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2017 년 4 월 8 일 다시 운행을 재개한다.

고도: 1850m
찾아가는 법: 루체른에서 기차를 타고 슈탄스(Stans) 역에 하차하여 5 분 정도 걸으면 슈탄저호른 케이블카 역이 나온다.
식당: 슈탄저호른 정상에는 45 분마다 한 번씩 360 도 회전하는 레스토랑, "론도라마(Rondorama)"가 있다.
이용료: 왕복 CHF 74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CHF 37)
www.stanserhorn.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